

Art



아트인컬처
January 2019

Interview /
이현숙, 갤러리 성공기
임근준, 평론의 고군분투기

Critic /
탄생 90주년, 조양규 재조명

Special Artist /
이불, 런던-베를린 특별전

Artist /
박서보 안지산 나점수

두 남자를 기리며

이강승展 2018. 11. 22~12. 22 원앤제이갤러리

이강승의 전시 <Garden>은 영국과 한국에서 '동성애 인권운동가'로 치열하게 활동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에이즈 합병증'으로 죽음을 맞이한 데릭 저먼과 오준수의 역사를 소환하여 그들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시도를 펼친다.

무명의 역사를 기억하다

래디컬한 영상작품을 통해 주류 내러티브 영화에 저항하면서 영국사회에 만연하던 동성애자 탄압에 맞서 싸우던 데릭 저먼은 영화 촬영을 위해 방문했던 켄트 지역의 던지니스(Dungeness) 바닷가에서 정원을 가꾸며 마지막 여생을 보냈다. 그런데 던지니스의 바닷가는 원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자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이러한 제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먼의 정원이 그의 사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생명력을 유지한 채 우리 곁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환기한다.

이강승은 자신을 던지니스로 초대한 저먼의 파트너 키스 콜린과의 인연으로 그의 정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던 오준수라는 존재를 떠올린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과 상황 속에 살았지만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트라우마가 비슷한 시기를 함께 보냈다. 그러나 저먼에 비해 오준수는 1990년대 초반 한국 동성애 인권운동의 숨은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정작 에이즈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사회적 낙인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지워진 존재에 가깝다.

서로 다른 역사를 지닌 두 인물을 통해 과거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상상하고자 했던 작가의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장에 가시화된다. 먼저 전시장 입구에는 오준수의 본명, 필명, 예명, 세례명 등을 일일이 호명하는 네온사인 작업과 함께 이강승이 직접 그린 오준수의 초상화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는 데릭 저먼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표면에 내세웠지만 사실 오준수라는 무명의 존재를 중심으로 전시의 전반적 키워 서사를 견인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강승은 주변인과 지인을 수소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오준수의 행적을 모아 아카이브 테이블을 완성했다. 그중, 죽음을 목전에 둔 고인이 격양된 톤으로 세상을 원망하는 편지는 당시 한국사회에서 에이즈 감염인이 처했던 처절한 상황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1층 전시장에 있는 두 개의 드로잉 <무제>는 각각 던지니스와 서울의 자갈을 수십 배 이상 확대하여 정교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외연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두 개의 자갈은 각각 데릭 저먼과 오준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저먼의 것이 그의 정원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와 인물을 나타내는 반면 탐골공원의 자갈은 오준수를 비롯한 익명의 존재를 대변하며, 이는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역사를 다시금 살피고 의미 있게 재현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전시의 주제를 관통하는 사물이다.

전시장 곳곳에 걸려 있는 밀도 높은 드로잉과 금실 자수, 도자기 등 노동 집약적 작업들은 두 인물의 삶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의 역사로 기록하려는 작가의 수행적 의지를 나타낸다. 이강승은 던지니스의 흙과 오준수가 거닐었을 법한 남산과 낙원동의 흙,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의 흙을 함께 섞어 도기로 만들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Earth to earth, ashes to ashes, dust to dust)'라는 성경 구절처럼 미처 알지 못했던 이들의 모든 역사는 흙 속으로 돌아갔다. 작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삶을 연결하고 성소수자와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억압과 저항의 역사를 가시화한다. 이로써 우리는 주류 역사에서 지워진 낙인과 질병의 역사가 우리의 기억을 넘어 작가를 통해 현대미술의 언어로 전유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 신은진

이강승 <무제(커버)> 삼베에 24K 니시진 금사 48×33cm
2018, 이강승 개인전
<Garden>은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국내 첫 개인전이다. 신작 및 근작 드로잉, 설치, 영상작품으로 각각 영국과 한국의 동성애 인권운동가 데릭 저먼(Derek Jarman, 1942-1994)과 오준수(1964-1998)의 삶을 기렸다.

